어린이책 비평시대 열리고 지식책 분야 지평 넓혀

2001년 어린이책의 흐름을 읽는다

올해는 어린이책 출판의 르네상스라 할 만했다. 어린이책 시장이 한해가 다르게 확장되고 국내 창작물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책 출판이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제 도서전에서 국내 출판사들의 '저작권 쟁탈전'은 이제 화젯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로 무분별한 번역물 수입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여기에 세월의 시련을 견딜 만한 창작품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아동문학 비평이 독자적 문학장르로 자리잡아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출간된 몇몇 국내 아동문학 평론들은 아동문학 이론의 궁핍과 비평의 부재를 메우고 '어린이책 비평'이 새로운 문학장르로 자리 잡는 데 힘을 실어줬다. 글쓰기 교육과 독서지도, 어린이책 출판에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최윤정은 미학적 입장에서 그림책의 매력을 분석한《그림책》(비룡소)을 보탰고, 원종찬의 첫 평론집《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은 우리 아동문학 비평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책세상)을 펴낸 최기숙은 전래 동화에 깃든 어른들의 가치관을 문제 삼았으며, 이재복은《판타지 동화 세계》(사계절)를 통해 판타지의 문학적 복권을 꾀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책 출판시장의 성장에 비해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중견 순문학 작가들의 아동물 진출이 여전히 활발했다. 시인으로는 지난해부터 〈선생님이 들려주는 옛이야기〉 시리즈(푸른숲)를 펴내는 김용택, 첫 동시집《빵 들고 자는 언니》(창작과비평사)를 펴낸 고형렬 등이 있고, 소설가로는 이전부터 창작동화를 써왔던 박완서와 이청준 그리고 최근엔 현길언이《전쟁놀이》(계수나무)를 펴내며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원작들이 양질의 스테디셀러라는 점에 주목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순문학 소설의 재출간도 꾸준히 이어졌다. 조정래의《어떤 솔거의 죽음》, 이미륵의《압록강은 흐른다》(이상 다림)와《무던이》(계수나무), 이청준의《낮은 데로 임하소서》(홍성사) 등이 그 면면이다.

올 한해 주목할 만한 필자로는 창작동화분야에서 중견작가 황선미와 원유순, 신인작가 안미란 그리고 지식책 분야의 김동광 등을 꼽을 수 있다.《나쁜 어린이표》(웅진출판),《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등을 통해 국내 창작동화 분야의 인기 작가로 떠오른 황선미의《초대받은 아이들》(웅진닷컴)은 또래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고민과 등장인물들 사이의 밀고 당기는 갈등을 맛깔스럽게 그렸다.《넌 아름다운 친구야》(푸른책들),《조금 늦어도 괜찮아》(채우리)를 쓴 원유순은 한센병과 소아마비를 앓는 등 소외된 인물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건강한 삶의 모습을 담았다.《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창작과비평사)에서 안미란은 씨앗을 둘러싼 자본과 생명의 논리라는 진중한 주제를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냈다. 김동광의 〈STS 프로그램〉 시리즈(아이세움)는 에너지, 균형과 조화, 체제와 상호 작용 등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아이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 침체된 과학지식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참신한 구성으로 장르간 벽 허문 책들 눈에 띄어

사계절이 지난해부터 펴내온 의욕적인 저작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 '어린이 경제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을파소의《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보도 섀퍼, 김준광), 동시와 과학의 특별한 만남을 주선한 김영환의《방귀에 불이 붙을까요?》(김영사), 보리의 세밀화로 그린 '나무백과사전'《나무도감》, 이슬람과 이슬람문명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이희수의《어린이 이슬람 바로알기》(청솔) 등은 올해 주목할 만한 책들이다. 이 책들은 모두 지식전달과 흥미 그리고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참신함으로 어린이책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어린이책 분야에서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지난해부터 인기몰이를 해온 〈해리포터〉 시리즈(문학수첩)였다.《나쁜 어린이표》,《어린이를 위한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 최영혁, 청조사),《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생각하는 아이를 위한 철학동화》(김해원, 계림),《괭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창작과비평사) 등도 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만화와 동화, 그림책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소개된 신화 관련책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예술혼을 불어넣는 어린이용 미술책의 연이은 출간 등도 올해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꼽을 수 있다.

—박옥순 기자